

# 9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FOMC 직후 출렁..다우 0.8%↓</p>	<p>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 미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진단`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했음. 가격부담과 유가급락이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었음. 여기에다 연준이 모지기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내달 중단기로 결정한 점도 `출구전략`의 첫 단추로 인식되면서 투자심리를 압박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1.32포인트(0.83%) 떨어진 9,748.5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88포인트(0.69%) 밀린 2,131.42를, 대형주 중심의 S&amp;P 500 지수는 10.79포인트(1.01%) 하락한 1,060.87을 각각 기록했음. 뉴욕증시는 장중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았음. 미 연준의 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커졌기 때문임. 그러나 연준이 오후 2시15분 FOMC의 회의결과를 발표한 직후 뉴욕증시는 크게 출렁거렸음. 미 연준이 발표문에서 "경제활동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언급한 점이 호재로 작용해 다우 지수는 순식간에 장중 80포인트 이상 오르며 9,900선을 뚫기도 했음. 하지만 지수가 9917선까지 상승하자 가격부담이 크게 불거졌음. 아울러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 코멘트도 충분히 예상됐다는 평가도 이어졌음. 오히려 연준이 모지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되 매입 규모를 줄이는 한편 다음달 말에 기한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음. 연준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줄일 경우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임. 이에 따라 장후반 뉴욕증시에는 차익 및 경계성 매물이 크게 늘면서 주요 지수들이 급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음. 특히 국제유가가 원유재고 증가 소식으로 4% 가까이 급락하며 68달러선으로 되밀린 점이 에너지주는 물론이고 상품주 전반에 부담을 주었음.</p>
<p>美 연준 "경제활동 회복세" 언급..모기지 채권 매입은 3개월 연장</p>	<p>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는 이날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갖고, 제로수준(0~0.2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음. 연준은 발표문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음. 다만, 미국경제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코멘트는 강화했음. 연준은 우선 "경제활동이 심각한 위축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경제활동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던 지난 8월 FOMC 발표문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뀐 것임. 연준은 또 발표문에서 "주택 섹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음. 미 연준이 FOMC 발표문에서 주택시장 개선흐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4% 가까이 급락	국제유가가 4% 가까이 하락하며 68달러선까지 다시 밀렸음.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증가세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음.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58달러(3.9%) 하락한 68.97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中 인민銀 총재 "2%이상 인플레이 용인 가능"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우샤오환 총재는 국영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은 대개 2%선에서 인플레이를 유지하길 바라지만 개도국 경제에는 목표치가 다소 높다"고 말했음. 그는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환율 안정"이라며 "(통화)정책은 국가 경제발전과 고용, 환율안정, 국제수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중국은 지난 해 7월 이후 수출업체 보호를 위해 위안화 강세를 지연시켜왔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국가가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유연성을 활용해 통화정책 완화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음.
李대통령 "韓·日 새로운 관계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하토야마는 23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과 북핵 공조에 대해 협의. 이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새로운 관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자"며 "하토야마 총리는 충분히 그런 역할 할 것이라 기대하고 나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 갖고 있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만들었으면 한다"며 "한일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세계 다양한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 하토야마 총리는 그러면서 "경제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핵문제 등 국제문제에 대해 공조해 나가자"면서 "2020년까지 25%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과감한 제안을 (UN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했음.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자극이 돼서 코펜하겐 환경회의에서 좋은 결과 맺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LG, 파주에 4조 투자..`첨단소재단지` 만든다	LG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월릉산업단지에서 `LG 파주 첨단소재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음. 이날 기공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류화선 파주시장 등을 비롯해 구분무 LG 회장, 강유식 LG 부회장, 구분준 LG상사 부회장, 남용 LG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허영호 LG이노텍 사장, 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LG가 소재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파주 첨단소재단지를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